

## 해외 입양: 식민주의와 근대주의 사이

Tobias Hübinette,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 동양어학과

제 6차 (사) 해외입양인연대 발표문

2005년 8월 19일, 서울 건국대학교

1953년과 한국전쟁 종료 이래 비백인 세계로부터 약 50만 명의 어린이들이 입양을 위해 북미, 북서 유럽, 호주와 뉴질랜드의 백인 부모들의 품 안으로 이동하였다. 현재도 연간 3만 여명에 육박하는 이 많은 어린이들의 이민은 공급국가의 가족계획 방법이나 아동 복지 관행으로, 혹은 수요국가의 연대를 보여주는 방식이나 불임 치유 방법으로 다루어지곤 했다. 학문적으로 보자면, 해외입양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의학 혹은 심리치료, 사회복지학이나 심리학 분야로 제한되었다. 해외입양을 보는 이러한 지배적 방식에 따르거나 주류 입양 연구를 단순히 재생산하는 대신, 필자는 해외입양을 식민주의와 근대주의의 두 과제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린이의 무역과 거래로 개념화하는 관점을 택할 것이며, 한국을 주된 사례로 연구할 것이다.

해외입양은 특정한 서구의 아동 입양 형태와 연관되어 논의되며, 유럽 식민지 제국의 역사 중 비 백인 인구의 강요된 이동의 선례,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미 제국의 등장에 맞추어 벌어진 어린이 구호 작전들과 비교되어 질 것이다. 한국으로부터의 해외입양은 또한 지배적 권력에 인간을 공물로 바치는 한국의 전통과 연결하여 설명될 것이며, 위안부 문제와도 비교될 것이다. 해외입양은 또한 한국의 가혹한 근대화 과정과 관련되며, 여성의 몸과 생산을 조절하는 사회적 억제와 생물학적 정확의 규제방안으로 나타내어진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해외입양의 기원과 역사, 현재 상황과 미래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다른 각도와 견해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다.

### 서구적 입양 형태

논의의 출발점은 해외입양은 특정한 서구 입양의 방식을 반영하며, 이러한 방식은 현재 확대 친족간 아동 위탁과 입양이라는 비서구적 전통을 대체하며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전세계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습이나 법제로서의 입양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국가나 문화에 존재해 왔다는 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기능과 의미는 각각 다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서구의 입양은 전 세계적, 인류학적으로 매우 비정상적이다. 이는 과다하게 가족 외적이다. 즉, 친가족과 입양가족간에 혈연 관계가 전혀 없으며, 친가족과 입양인은 서로 모르며 연결이 단절되고, 양부모는 아이에게 법률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다.

미국의 여성주의자 Mary Kathleen Benet(1976:4)은 이러한 특수한 서구적 입양형태를 근대 초기에 일어난 서구국가들의 확대가족 붕괴와 핵가족으로의 대체 과정에 대한 보상으로 보았다. 이 주장과 함께 여러 입양관련 연구자들에게 지적된 바는 서구 중산층의 '고아'와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개념이, 부모 없는 아이들의 친족간 위탁, 순환 양육이 입양보다 일반적인 비 서구사회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서구적 개념이 어떻게 국가간 입양에 대한 헤이그 협약과 같은 회의를 통하여 국제적 체계모니를 구축해 가고 있는가도 지적하고 있다.(Fonseca, 2002; Panter-Brick, 2000)

### 유럽의 이동과 강제 이주

해외입양, 이른바 비서구국가들로부터 서구 양부모에게로의 어린이의 이동은, 한국전쟁과 연계되어 대규모로 시작되었다. 고전적 식민지 시대, 서구의 선교사들과 군인, 정착민들이 "원주민" 혹은 "본토"의 아이를 가끔 입양했던 선례가 있기는 했다. 한국의 예를 능가하는 혹은 필적하는 식민지하 인종간 입양의 예는

19세기 말로부터 1990년대 중반에 걸쳐 발생한 5만 명의 미 원주민 아동의 백인가정 입양의 예가 있다. 또한 호주의 백인 거주 식민지역 원주민아동 5만 명은 1900년에서 1970년에 걸쳐 강제로 부모를 떠나 영국 가족의 보호 아래로 옮기는 문명화 정책을 따라야 했다. (Crichlow, 2002; Krieken, 1999; Strong, 2001) 그러나 한국으로부터의 해외입양과는 반대로 이러한 국내 소수 원주민의 백인가정으로의 인종간 입양은 현재는 민족말살 혹은 문화 말살이라는 비난과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교적 이주 관점에서 살펴보면, 아동 이주의 역사 중 해외입양에 상응하는 예로는 1618년에서 1967년 영국 제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 본토로부터 가난한 어린이 13만명을 이주시킨 사례가 있다. 또한 1854~1929년에 걸쳐 미국 동부에서 중서부의 값싼 노동력 공급을 위하여 운행했던 “고아 기차” 로 이주한 11만명의 시설 아동들의 경우를 들 수 있다. (Bean & Melville, 1989; Holt, 1992) 즉, 어린이들은 식민지의 인구 증가를 위하여 쉽게 이용되었고, 이러한 어린이 대규모 이주의 오래된 서구제국주의 전통은 왜 한국에서 전쟁 직후에 해외입양이 대량으로 급속히 일어났는지 잘 설명해 준다. Linda Gordon(1999)이 조사했던 미국의 고아 기차 프로그램에서는 인종과 민족이 주된 역할을 한 흥미로운 예를 볼 수 있다. 1904년 40명의 뉴욕 아일랜드계 어린이가 아리조나의 카톨릭 가정에 보내졌다. 그러나 그 카톨릭 가정이 멕시코 사람임이 밝혀지자 지역의 백인들이 이 인종 경계의 침범에 분노하여, 총이 겨누어진 채 이뤄졌던 이 아동의 대량 납치 사건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직접행동을 통하여 백인의 특권으로서의 인종간 입양은 굳건히 재정립되었고, 한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부부가 백인아이를 입양한다거나 한국 아이들이 남미나 아프리카로 해외입양을 간다는 사실은 상상으로만 가능한 일이 된다. 죄수나 노예 혹은 “원주민”에게 입양된 식민지시대 백인 어린이의 수감 서사를 제외하고는, 두 개의 드물지만 유명한, 거의 사실과는 반대인 뒤바뀐 입양의 경우가 존재한다. 하나는 Rudyard Kipling의 *Kim*이라는 1901년작 소설 속의 백인 고아이며, 다른 하나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Rabindranath Tagore의 유명한 소설 *Gora*(1924)이다. 이 경우는 모두 영국령 인도의 원주민인 인도인에 의해 양육되었다. 백인 미국 인디언 입양인 또한 많은 서부영화에 나타나며, 16~18세기에 북부 아프리카 해안에서 해적들에게 납치되어 끌려가 노예로 팔려가는 유럽 젊은이 들도 이에 포함된다.

50만 어린이를 50년간 서구 국가로 보낸 현재의 해외입양은 1510~1870년에 걸쳐 1천 1백만의 아프리카인을 실어 나른 노예무역과도 비견할 만 하며, 1천 2백만의 인도, 중국인들을 저임금 노동자로 광대한 유럽 식민지에 보낸 계약 노동자 파견과도 필적한다. 현재 일어나는 국제결혼과 성적 착취를 위한 여성의 대량 거래도 역시 하나의 예가 된다. 이러한 4가지 강제 이주에 대하여 아직 비교 연구는 없지만 이러한 비백인 인구의 대륙간 운송과 상품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된다면 학계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인류학자 Igor Kopytoff(1986)는 상품의 문화적 전기에 관한 연구에서 노예의 상품화와 입양인의 유사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노예 무역과 해외입양을 비교하면 많은 충격적 유사성이 발견된다. 두 관습 모두 충족되지 않는 소비자의 수요와 사적 시장의 이익, 그리고 냉소적 이윤추구가 동력이 되며, 젊고 건강함이 가장 높게 평가되는 고도로 발전된 가격결정체제에 의해 운용된다. 둘 다 노예사냥꾼과 무역상, 입양기관과 전문가라는 부르주아 중개상들의 존재에 의존하며 안전하고 능률적인 지구적 운반체제를 필요로 한다. 노예와 입양인은 어린 나이에 가족, 형제, 친척 및 소중한 사람들과 헤어지며,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박탈당하고, 항구나 공항에서 다시 태어나며, 기독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아 주인의 이름을 따르며, 마지막엔 낙인이나 사례번호로 주어진 비 백인의 몸만을 간직하게 된다. 특히 가정 혹은 하인 노예의 경우는 해외입양인과 매우 비슷한데, 주인님과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것과 그 가정과 가족의 법적 소유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가정으로 이주했을 때 노예나 입양인의 물적 조건이 매우 향상된다는 피상적 논의에 의해 정당화되고 인정된다. 끝으로, 두 그룹 모두 주인과 구매자의 필요, 요구,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주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외입양인들은 쉽게 이국적 애완동물, 강아지, 장식품, 보석이나 장난감, 문화 관광 기념품, 자선사업, 개발 원조의 개별적 사례, 혹은 살아있는 트로피나 전리품으로 사랑 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은 고전적 노예 무역이나 계약 노동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여성의 거래는 불법이며 세계적으로 비난 받는데 반해, 오직 해외입양만이 비난 받지 않고, 사실상 서구적 입양 개념을 인정하는 여러 “국제적” 회의에서 합법화되며, 냉전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화, 국제 노동의 생물정치학적 변모, 다문화주의 담론의 일반화, 서구 국가 재생산을 위협하는 중산층 출산율의 저하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Bibler Coutin, Mauer & Yngvessen, 2002; Liefesen, 2004; Varnis, 2001)

### 아동 구호 작전과 미 제국의 건설

동반하는 이가 없는 피난민 아동의 연구에서, Everett Ressler, Neil Boothby, Daniel Steinbock(1988:9-12)은 해외입양의 근대적 선조를 1차 대전 이후 시작된 전쟁고아 구호 작전으로 보는 데, 이때 오트만 제국의 학살에서 살아남은 아르메니아 어린이들이 그리스와 러시아로 이주하였다. 또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서 분리된 수 만의 전쟁고아들은 적십자사와 어린이 구호재단(Save the Children)의 감독 하에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와 노르딕 국가의 위탁가정으로 일시적으로 옮겨진다. 1, 2차 대전 사이에는 2만 여명의 스페인 아이들이 스페인 내전 동안 프랑스, 남미, 스칸디나비아와 소련의 시설과 대리부모에게 보내졌는데, 그 중 3천 여명이 영원히 머물거나 돌아오지 않았다. 동일한 과정이 2차 대전 이전 혹은 전쟁 중에 일어나서, 나치가 지배하던 중부 유럽에서 2만 명의 유대인 어린이들이 영국과 다른 서유럽 국가로 이동하였고, 7만 명의 핀란드 전쟁고아가 스웨덴으로 일시 이주하였으나 이 중 1만 명은 입양되거나 위탁아동이 되었다.(Kaven, 1994; Lomfors, 1996) 이외에, 나치 독일은 Lebensborn 프로그램 통해 외모가 인종적으로 받아들여 질 만 하고 독일화 되거나 독일 가정에 입양될 수 있는 20만 이상의 아이들을 동유럽에서 데려왔다.(Clay & Leapman, 1995) 전쟁 말기에서 1953년 까지는 5천 명 정도의 아이들이 중국, 대만, 동유럽과 그리스, 독일, 이태리, 일본으로부터 동반자 없는 난민 아동으로서 미국으로 이주되었다. 이 중 일부는 미군의 자녀였다. (Lemke Munitz de Faria, 2003; Quinn, 1961)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외입양의 관행은 한국전 직후 서양의 개인과 자발적 단체에 의해 조직되어, 미군의 자녀인 혼혈 아동을 미국이나 서유럽의 양부모에게 보냈던 인본주의적 구호 작전으로 시작되었다. 혼혈 아동과 전쟁고아, 그리고 어려운 한국 내 사정은 1950년대 초반 미국 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었고, 그 숫자는 종종 크게 과장되었다.(Chakerian, 1962; Miller, 1971) 전후 한국의 혼혈아동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집착은 동남아시아 프랑스와 네덜란드 식민지에서 외도, 강간, 매춘으로 탄생한 유라시안 아이들이 유럽 제국주의 시대에 받은 처우와 매우 유사하다. 식민지하 “혼혈의 문제”와 사적 관계를 연구한 Ann Laura Stoler(2002)에 따르면, 유럽 사람들, 특히 여성주의자나 기독교 박애주의자, 인본주의자 그룹에게 있어 이러한 어린이들은 구원 환타지와 구호 프로그램의 대상이었다. 사실상 친모와 물리적 강제적으로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버려진 고아들로 묘사되었으며, 특수한 고아원이나 기숙학교에 보내져 백인 특권 의식과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호 받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미국의 혼혈 아동에 대한 관심과 입양은 위에서 말한 유럽의 경우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명심해야 한다. 2차 대전 이전, 아시아에서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제국이 유럽 정착민의 자녀인 혼혈아동을 다른 경우에는, 이들 중 대부분이 입양되거나 유럽으로 이주되지 않고, 식민지 지배가 종결된 후에도 남겨져 있었다는 점이다.

국제적 관점에서 한국전쟁은 냉전의 시작이며, 미국의 세계 지배의 시발점이 된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혼혈아 일곱 명의 양어머니였던 Pearl S. Buck은 1950, 60년대 서유럽과 미국인들에게 한국 아이를 입양하라고 호소한 인물 중의 한 명이다. Laura Briggs(2003)은 Buck이 어린이 구호, 반공주의, 미국의 부계적 책임감 등의 수사를 이용하여 어떻게 아시아 어린이의 입양을 역설했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해외입양의 기원에 끼친 미국의 영향과 아시아 어린이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Christina Klein(2000; 2003: 143-190)에 의해 해석되었다. 이는 냉전 사고의 표현이자 가족애이며, 아시아 아이를 후원, 입양함으로써 아시아인들과 가족적 관계를 형성하는 자비로운 "백인 엄마"로서의 미국의 모습이다. 동시에 아시아 인들은 여성화, 아동화 되며, 스스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문명의 구원과 계몽이 필요한 존재가 된다. 결과적으로, 해외입양은 미국의 대외정책과 미국 제국의 형성에 한 부분이 되어 정치관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반공주의의 개입을 합법화하는 동시에 평범한 미국인에게도 냉전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동일한 양상이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에서 처음부터 해외입양의 주된 공급처였던 한국의 환경은 표준사례가 되었다. 베트남이나 태국과 같은 국가에 미국이 침입하게 되면 그 국가로부터의 입양이 결과적으로 발생 하였다. 그래서 서구와 미국으로 아이를 공급하는 주된 국가들이 미국의 영향을 받았거나 미군의 개입이나 주둔, 점령을 경험한 국가임은 우연이 아니다. 이들 국가로는 아시아에서 한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 남미에서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 페루, 온두라스, 아이티,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와 남아공이 있다. 해외입양의 정치경제학은 또한 현재의 지정학적 변화와 조건을 반영한다. 이러한 예로는 이란이 이슬람 혁명 이후 국외 입양을 중단한 것, 남아공과 러시아, 다른 동부 유럽국가가 인종분리정책이나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입양을 시작한 것, 또 중국과 베트남이 개혁,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입양을 시작하게 된 것 등이 있다.

### 한국의 공물 증정과 위안부 문제

이러한 유럽과 미국의 제국주의적 배경 이외에 한국의 유교적 사대주의에 기반한 지배권력에 인간을 공물로 바치거나 수출하는 역사가 설명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여성들은 "국가를 구하거나" "애국자"로 행동하기 위한 대가를 지배권력을 즐겁게 하기 위한 선물이나 공물로 보내지며 지속적으로 치루어 왔다. 중국, 일본, 미국 제국주의의 종속국으로 오랜 역사를 이끌어오며, 몽고의 궁녀, 명 제국의 궁녀, 만주 왕조의 인질(환향녀), 일제의 위안부, 미국인의 부인이나 군매춘부(양공주), 서구 관광객, 학자, 사업가나 외교관을 위한 기생 매춘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Soh, 2004) 이러한기에 공물로 인간을 거래하는 한국의 오랜 전통의 연장으로 입양아동을 더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특히 위안부의 운명은 한국 입양인과 유사점이 많다. 한국 입양인은 위안여성처럼 Gayatri Spivak(1988)의 관점에서 소외 하층민(subaltern)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 낙인 찍힌 두 그룹이 이들을 둘러싼 수치와 불명예로 인해 보이지 않고 말할 수도 없음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입양된 한국인은 이들이 이미 다른 이에 의해 이야기되고 대표되었기에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공급하고 받는 국가에 의해서는 침묵하는 물리적 유대와 문화사절로서, 입양기관과 양부모에 의해서는 고맙게 여기는 불쌍한 구호 대상으로서, 그리고 입양 연구자들에게는 민족주의 후기의 개척자와 모범적 다양성의 모형으로서 나타내어 졌던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한국사회에서, 그리고 입양 삼자구도에서 진정으로 소외되고 침묵하고

있는 하층민을 꼽는다면(입양인들이 근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든 점을 인정할 때) 이들은 아마도 친가족, 특히 어머니들이 될 것이다. 수만의 한국 친모들의 목소리는 성별화된 한국 민족주의와 인종화된 서구 자본주의라는 형태의 전통과 근대성 사이에서 여전히 들리지 않고 있다. 실제로 Spivak은 그녀의 소외하층민에 대한 유명한 논문에서 우연히 한국의 젊은 여성 공장 노동자를 사례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연구자는 알지 못했지만, 이들은 실제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한국 해외입양의 전성기 동안 가장 많은 입양 아동을 공급한 집단이다.

박진경(2002)은 한때는 묻혀있었으나 최근 발견된 위안부들의 기억, 경험과 자기 서사를 바탕으로 이들의 죄의식은 일본으로부터 뿐 만 아니라 이 위안부들을 모아 보낸 중간자로서의 한국인들로부터도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정부와 입양기관이 혼외 출생 아동을 찾아내 서양으로 내보내는 현재의 역할이 한국의 가부장제와 관계 맺는 방식과 유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쟁이전 미국의 노예제를 위해 만들어낸 회유적 표현과 비견되는 한국의 특수한 제도, 해외입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의 “어둠” “원시적인” 과거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강요된 어린이의 대량 이동을 막아보려는 한국정부의 몇가지 실패한 계획과 한국 대통령들의 역시 이루어지지 못한 아동 교역금지 호소 이후에도, 한국은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아이를 공급하는 국가 중 선두그룹이다.

이러한 문제적 사실은 입양한국인의 문제가 위안부의 문제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비록 이 두 그룹이 한국의 가부장제와 일본 혹은 서구 식민주의의 결합으로 운명 지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말이다. 위안부의 모집과 이동이라는 식민지적 범죄 공모는 해외입양의 법제화와 진행이라는 (후)식민지적 공모로 재생산, 모방 되었다. 한국이 지금 당장 해외입양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사에서 지구상 가장 많은 자신의 시민들과 아이들을 매매하고 수출하여 온 국가라는 사실을 여전히 극복하여야만 한다. 그러하기에 해외입양은 입양인들 자신이 살아있는 한, 아니 그들의 생애 이후에도 한국을 압박하고 공격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노예무역이 그 종결 이후 한 세기가 지나도록 공급 국가와 수요 국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 한국의 근대화 사업

마지막으로, 한국의 해외입양 역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의 근대화 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0년 학생들의 봉기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권의 독재적 지배가 끝나고 민주화 시기를 맞았다. 1961년 박정희의 군사혁명은 이 짧은 민주화의 경험을 갑자기 정지시켰고, 강력한 반공주의, 개발주의 근대화 이론에 기반하여 학생과 노동자를 억압하며 무자비한 국민의 결집을 요구하는 군사독재정권이 시작된다.(Choi, Chungmoo, 1995; Shin, 1998) 이 군사지배 시기에 한국은 전형적 개발국가의 징후인 다수의 가난과 인구 과잉을 겪고 있는 농업사회였다. 1962년의 첫 5개년 경제계획을 시작으로 이후 30년 안에, 독재정권하의 한국은 놀라운 속도와 경악할만한 능률로 농업사회에서 근대산업 국가로 변모되었다. 인구를 줄이기 위해 실행한 두 가지 주된 조치는 가족계획과 이민이었는데, 해외입양은 이 둘의 조합으로 보여졌다. 그래서 박정희(1961-1979)와 전두환(1981-1987)의 독재정권시대에 한국의 해외입양은 전성기를 맞게 되었고, 모든 입양의 4분의 3이 이 시기에 이루어 졌다.

군사정권 초기에 최초의 근대적 입양법인 고아 입양특별법이 1961년 9월 30일 통과 되었다. 이는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 보호의 대안으로 해외입양을 운영하기 위함이었다. (Chang, 1996; Kim Chin & Carroll, 1975) 이 법령은 한국 아동의 국제 입양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효율적 기관과 빠른 절차, 안정된 업무를 자랑하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효율적 입양 산업의 근간이 되었다(Penner, 1996: 35-36). 1967

년도 법안 수정 후, 한국 법에 준하여 서구와 밀접히 일하는 정부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발생하는 모든 입양사례에 이 법은 적용되었고, 비용은 모두 다 양부모가 부담하였다 (Tahk, 1986:80-81). 입양 법의 통과와 해외입양의 제도적 틀 마련은 한국의 사회사업의 전문화와 사회복지의 관료화를 나타내며, 이는 근대화 과업과 사회적 개발과 진보를 실행하는데 사회적 계획과 과학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이 시점으로부터 한국은 전통에서 근대로의 험난한 길로 출발하였으며, 이 때 해외입양이 재생산 영역에서 인종적 사회적 정화와 가부장적 억제를 위한 가장 성공적인 자치적 조절과 규율의 기술로 자리매김하였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부하의 손에 살해 당한 후, 다시 짧은 민주화 시대가 왔으나, 이는 또 하나의 강성 군부 대통령인 전두환이 쿠데타를 통하여 정권을 잡으므로 끝나게 된다. 1980년에 이 정권은 해외입양에 관한 정책의 윤곽을 밝혔는데, 이는 이민을 늘리고 서구 동맹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소위 비정부적 외교 정책과 합쳐진다(Sarri, Baik & Bombyk, 1998). 정부의 규제완화조치에 따라 네 입양기관은 입양아동의 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서로 경쟁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거의 7만 건의 입양이 10년 안에 일어나는 초유의 입양 산업 번영 시대를 맞이하였다. 입양기관들은 이윤 추구 사업과 부동산 투자에 참여하였고, 조산소, 위탁가정과 일시보호소를 직접 운영하였다. 특히 어린 미혼모들을 위한 보호소도 확대 운영하였는데, 이는 지속적인 건강한 갓난아기의 공급을 위한 것이었다.

1980년대와 민주화 과정 이래 해외입양인의 수는 점차 줄어들었고, 현재 2400명의 어린이가 매년 입양되고 있다. 아이를 포기하는 어머니들은 현재 거의 10대이거나 25세 이하인데, 이들은 임신사실을 숨기고 입양기관 소유의 미혼모의 집 안에서 임신기간을 보내기도 하며, 이들 대부분 중산층 자녀로서 혼전 성행위가 부모와 아이 모두의 사회적 발전을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해외입양은 입양기관들에게 기계와도 같은,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상이 있는 사업이었고, 한국정부에게는 사회복지 비용 지출을 피할 수 있는 편한 도피처였으며, 한국사회전체에게는 엄격한 가부장적, 인종주의적, 이성애적 규범을 지킬 수 있는 잔인한 자기규율이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해외입양은 인종적 우생학, 개발주의적 사고와 사회적 조작이라는 이름으로 불순하고 폐기할 수 있는 소외계층을 없애고 청소하는 한국 근대주의 과업의 오래된 권력 기술이었다.

### 식민주의와 근대주의 사이에서

요약하면, 식민주의적, 근대주의적 양태와 역사 간의 긴밀한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필자는 해외입양을 비서구 아동의 문명화와 신분상승이라는 식민지적 과업과 여성의 출산을 조절하고 규제하는 한국의 근대화 과업의 혼합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해외입양은, 구원 환타지와 식민주의적 꿈을 가진 서구사람뿐만 아니라 입양아동을 모집, 배달하는 중간자로서의 한국인으로부터도 발생하는 권력의 모순적 복합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필자는 스스로를 서구 제국주의를 비난하는 공급국가의 민족주의자들이나 전통적 가치를 비난하는 수요국의 해외입양 비판자 들 모두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였다. Karen Dubinsky(2005)는 인종간 입양 아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여러 방법을 논의한 논문에서 옳은 지적을 하였다. 서구 서사에 나타나는 “원시주의와 가부장제”로부터 아이를 구원한다는 논리나 비서구적 서사의 “사악하고 욕심많은 백인”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납치, 유괴, 절도 한다는 논리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해외입양의 정치학을 완전히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주는데, 서구와 비 서구 모두 이 사업에 의심할 여지 없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신, 필자는 식민주의와 근대주의의 이중 구속과 이 두가지 과업의 복잡한 역학사이에서 어떻게 해외입양이 발전되어 왔으며 존재해 올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려 하였다.

## &gt;&gt; 참고문헌

- Bean, Philip and Joy Melville. 1989. *Lost children of the Empire. The untold story of Britain's child migrants*. London: Unwin.
- Benet, Mary Kathleen. 1976. *The politics of adoption*. New York: The Free Press.
- Bibler Coutin, Susan, Bill Maurer and Barbara Yngvesson. 2002. "In the mirror: The legitimization work of globalisation". *Law & Social Inquiry* 27 (4): 801-843.
- Briggs, Laura. 2003. "Mother, child, race, nation: The visual iconography of rescue and the politics of transnational and transracial adoption". *Gender & History* 15 (2): 179-199.
- Chakerian, Charles G. 1962. *Concern, responsibility, opportunity. First report on Korea*. New York: Church World Service.
- Chang, Pilwha. 1996. "A feminist view of social policy in some East Asian countries".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2 (1): 7-37.
- Choi, Chungmoo. 1995. "Transnational capitalism, national imaginary, and the protest theater in South Korea". *Boundary 2* 33 (1): 235-261.
- Clay, Catrine and Michael Leapman. 1995. *Master race. The Lebensborn experiment in Nazi Germany*. London: Hodder & Stoughton.
- Crichlow, Wesley. 2002. "Western colonization as disease: Native adoption and cultural genocide". *Critical Social Work* 2 (2): 104-127.
- Dubinsky, Karen. 2005. "Babies without borders: Adoption and the symbolic child in Canada, Cuba and Guatemala". Paper presented at the 13th Berkshire Conference on the History of Women, Scripps College, Claremont, June 11, 2005.
- Fonseca, Claudia. 2002. "The politics of adoption: Child rights in the Brazilian setting". *Law & Policy* 24 (3): 199-227.
- Gordon, Linda. 1999. *The great Arizona orphan abdu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olt, Marilyn Irvin. 1992. *The orphan trains. Placing out in America*.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Janfelt, Monika. 1998. *Stormakter i människokärlek. Svensk och dansk krigsbarnshjälp 1917-1924* [Great powers in human love. Swedish and Danish support to children of war 1917-1924]. Abo: Åbo Akademi University Press.
- Kavén, Pertti. 1994. *70,000 små öden* [70,000 small destinies]. Otalampi: Sahlgren.
- Kim, Chin and Timothy G. Carroll. 1975. "Intercountry adoption of South Korean orphans: A lawyer's guide". *Journal of Family Law* 14 (2): 223-253.
- Klein, Christina. 2003. *Cold War Orientalism. Asia in the middlebrow imagination, 1945-1961*.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opytoff, Igor. 1986. "The cultural biography of things: Commoditization as process". In *The social life of things. Commodities in cultural perspective*, edited by Arjun Appadurai, 64-9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ieken, Robert Van. 1999. "The 'stolen generations' and cultural genocide: The forced removal of Australian indigenous children from their familie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sociology of childhood". *Childhood* 6 (3): 297-312.
- Leifsen, Esben. 2004. "Person, relation and value. The economy of circulating Ecuadorian children in international

adoption". In *Cross-cultural approaches to adoption*, edited by Fiona Bowie, 182-196. London: Routledge.

Lemke Muniz de Faria, Yara-Colette. 2003. "'Germany's 'brown babies' must be helped! Will you' U.S. adoption plans for Afro-German children 1950-1955". *Callaloo* 26 (2): 342-362.

Lomfors, Ingrid. 1996. *Förlorad barndom, återvunnet liv. De judiska flyktingbarnen från Nazityskland* [Lost childhood, regained life. The Jewish refugee children from Nazi Germany]. Ph.D.-dissertation. Gothenburg University: Department of History.

Miller, Helen. 1971. "Korea's international children". *Lutheran Social Welfare* 13 (Summer): 12-23.

Panter-Brick, Catherine. 2000. "Nobody's children? A reconsideration of child abandonment". In *Abandoned children*, edited by Catherine Panter-Brick and Malcolm T. Smith, 1-2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rk, Jin-kyung. 2002. "Can the 'comfort women' speak?: Questions of female subjectivity, subaltern agency, and representation in colonial and post-colonial Korea". *Feminist Con/text* 10 (Fall):

<http://www.icahdq.org/divisions/feminist/context/2002Fall/studentPaper.htm> (2003-08-01)

Penner, Erica E. 1996.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child adoption practices and policies in Korea and China*. M.A.-thesis. McGill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Quinn, Daniel P. 1961. "The placement of refugee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Catholic Charities Review* 45 (7): 13-18.

Ressler, Everett M., Neil Boothby and Daniel J. Steinbock. 1988. *Unaccompanied children. Care and protection in wars, natural disasters, and refugee movemen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arri, Rosemary C., Yeonoak Baik and Marti Bombyk. 1998. "Goal displacement and dependency in South Korean-United States intercountry adop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0 (1-2): 87-114.

Shin, Gi-Wook. 1998. "Nation, history and politics: South Korea". In *Nationalism and the construction of Korean identity*, edited by Hyung Il Pai and Timothy R. Tangherlini, 148-165. Korea research monograph 26. University of California: Center for Korean Studies.

Soh, Chunghee Sarah. 2004. "Women's sexual labor and state in Korean history". *Journal of Women's History* 15 (4): 170-177.

Spivak, Gayatri Chakravorty. 1988. "Can the Subaltern speak?". In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edited by Ca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 271-313.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Stoler, Ann Laura. 2002. *Carnal knowledge and imperial power. Race and the intimate in colonial rul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trong, Pauline Turner. 2001. "To forget their tongue, their name, and their whole relation: Captivity, extra-tribal adoption, and the Indian Child Welfare Act". In *Relative values. Reconfiguring kinship studies*, edited by Sarah Franklin and Susan McKinnon, 468-493.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Tahk, Youn-Taek. 1986. "Intercountry adoption program in Korea. Policy, law and service". In *Adoption in worldwide perspective. A review of programs, policies and legislation in 14 countries*, edited by R.A.C. Hoksbergen, 79-91. Lisse: Swets & Zeitlinger.

Varnis, Steven L. 2001. "Regulating the global adoption of children". *Society* 38 (2): 39-46.